

임상간호사의 성공적 노후인식, 퇴직에 대한 태도 및 노후대책*

이 민 숙** · 이 지 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는 향후 사회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저출산에 따른 상대적 고령화는 노인부양비의 증가로 일할 사람은 줄어 들고 부양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게 된다. 2010년 노인부양비(15.0)는 생산인구(15-64세)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수준이나,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2020년에 생산인구 5명이 1명을, 2040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Statistic Korea, 2012). 젊은 세대는 부모로부터 재산상속은 당연시 하면서 부모부양은 등한시하는 경향이고, 노인세대는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준비되지 않은 채 길어진 문제많은 노후생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Lim, 2006). 길어진 노후생활은 준비가 중요하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년기에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성공적 노화가 가능하며 질적인 노후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다(McLaughlin, Connell, Heeringa, Li,

& Roberts, 2010). 국내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와 성공적인 노년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Han (2009)은 평균 연령이 30.4세, 평균 근무기간이 5년 8개월, 39세 이하가 전체 간호사의 90% 이상이라고 하였으며, Ahn (1994)은 퇴직연령이 27.1세, 평균 재직연한이 3.8년이라고 하였다. 간호사의 퇴직 준비 과정과 교육요구에 대해 연구한 Oh (2001)는 퇴직 후의 진로와 생활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경제적 불안정 때문에 퇴직 후 생활을 걱정하며, 퇴직이 주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 후회스럽고 서운하게 인식한다고 하였으며, 현실에서 남보다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3교대 등 근무환경의 특성 때문에 간호사들은 노후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조기 퇴직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간호직이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직업 수명이 길지 않음으로 인한 조기퇴직은 노후준비와 대책의 부족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라 하겠다. 간호사들의 노후준비에 대해 연구한 Han (2009)은 간호사들은 건강, 경력, 취미여가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신체적, 경제적 측면의 노후준비가 부족하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20대 간호사가 노후준비와 인식이

* 이 논문은 제1저자 이민숙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삼성창원병원 간호사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교신저자 E-mail: jihyunlee@kosin.ac.kr)

투고일: 2012년 9월 13일 심사위원회일: 2012년 10월 17일 게재확정일: 2013년 4월 9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Lee, Ji Hyun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262, Gamcheon-ro, Seo-gu, Busan, 602-702, Rep. of KOREA

Tel: 82-51-990-6448 Fax: 82-51-990-3031 E-mail: jihyunlee@kosin.ac.kr

부족하다고 하였다. 퇴직 후 간호사의 노후 생활 준비에 관한 의식을 조사한 Lim (2006)의 연구에서 경력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노후 생활에 대해 관심 정도가 많았으며 노후 생활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경제와 건강 문제라고 하였으며 간호사로서 보다 안락하고 성공적 노후를 보내도록 안정된 직장에서 퇴직 전 노후준비를 기본으로 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유지 등의 체계적 자기 관리와 장기적인 퇴직 후의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퇴직은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며 지금까지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역할과 지위, 수입, 환경, 사회적 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노후의 삶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므로 노후대책이 요구된다. 노후대책은 젊은 사람과 비교 시에 최소한의 생리적 손상만을 경험하거나 전혀 생리적 손상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는 성공적 노후이며(Kim & Shin, 2006), 노인들이 기대하며 바라는 질병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Park & Yi, 2002). 또한 Park (2006)은 성공적 노후는 질병이 없이 신체기능을 유지하며 가족지지 체계 내에서 사회, 심리적으로 적응하여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느끼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노후의 삶과 생활 및 기능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간호사, 보건직, 행정직의 병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후대책을 연구한 Park (2008)은 간호사의 경우 경제적 계획을 세운 경우가 65%, 신체적 계획을 세운 경우가 42.1%이었으며, 대상자의 43.6%가 정서적 문제 중 정신적 고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 경제적 여유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유지 등 개인적인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근무여건과 후생복지가 열악하므로 성공적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안정적인 직장 생활에서 퇴직 전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유지의 체계적인 자기 관리와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바람직하며 퇴직 전 노후에 대한 가치관 및 사회적 의식 변화가 필요하고 스스로 노후에 대한 긍정

적 태도와 구체적인 노후대책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필요하다(Park, 2004).

성공적 노후인식, 퇴직에 대한 태도, 노후대책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공적 노후의 영향요인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Lim (2006)은 성공적 노후 생활에 필요한 요인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라고 하였다. 간호장교의 노후대책에 대해 연구한 Cho (2005)는 경제적 준비는 연령이 낮을수록 저축액이 높으나 경제적 대책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55.7%가 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체적 건강관리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인부양비와 단독세대가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할 때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성공적 노후인식과 퇴직에 대한 태도 및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노후대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성공적 노후인식과 퇴직에 대한 태도 및 노후대책 정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노후대책 정도를 파악하여 지역보건사업에 참여하거나 퇴직 후 지역사회주민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인으로써 간호사의 바람직한 노후대책의 방향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성공적 노후인식 정도, 퇴직에 대한 태도와 노후대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성공적 노후인식, 퇴직에 대한 태도 및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노후대책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체 특성(인구사회학적, 근무관련 특성)에 따른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노후대책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성공적 노후인식

- 이론적 정의: 성공적 노후는 신체상의 질병이 없이 기능을 유지하면서 가족지지 체계 내에서 사회적, 심리적으로 적응하여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느끼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노후생활을

보내는 것을 말하며(Park, 2006), 성공적 노후인식은 성공적 노후에 대한 개인이 의식하고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Park, 2004).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성공적 노후인식은 Sung과 Yu (2002)의 성공적인 노화 이론들을 토대로 Park (2004)이 개발한 성공적 노후인식 도구를 Han (2009)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값을 의미한다.

2) 퇴직에 대한 태도

- 이론적 정의: 퇴직은 전임이나 시간의 고용상태에서 고용 상태를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직위에 관련된 역할수행을 일부 또는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며(Cronan, 2009), 퇴직에 대한 태도는 퇴직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의식의 표출 양식을 말한다(Kim, 2004).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퇴직에 대한 태도는 Kim (2004)이 사용한 퇴직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값을 의미한다.

3) 노후대책

- 이론적 정의: 노후대책은 노후를 대비한 계획, 노후 불안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을 뜻하며 노후 생활의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인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차원의 준비상태 말한다(Kim, 2010).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노후대책은 Kim (2010)이 개발한 노후대책 측정도구로 측정된 값을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성공적 노후인식, 퇴직에 대한 태도 및 노후대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C시에 소재한 2개의 2차 병원에 근무하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정규직 간호사 200명을 대상으

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 power 3.1.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상관관계분석에서 사용될 통계적 검정법에 따라 결정하였다. 검정력($1-\beta$)=.90, 유의수준 α =.05, 효과크기(effect size) medium=.30으로 산출하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표본크기는 196명이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200부를 배부해 미회수된 설문지를 외하고 195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임상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자료수집 시점에 퇴직의사가 정해지지 않은 자,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 구성은 성공적 노후인식 13개, 퇴직에 대한 태도 9개, 노후대책 25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19개 문항으로 총 6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성공적 노후인식 측정도구

성공적인 노후인식 측정도구는 성공적인 노화 이론들(Sung & Yu, 2002)을 토대로 Park (2004)이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한 성공적 노화 인식 측정 도구를 간호사를 대상으로 Han (2009)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3개 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88, Han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2이었다.

2) 퇴직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

퇴직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는 중년기 직장남성을 대상으로 Kim (2004)가 개발한 퇴직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9개 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범위로 점수

가 높을수록 퇴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5문항은 긍정적 내용이며 4문항은 부정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부정적 문항은 역산처리 하였다. 도구 신뢰도는 Kim (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7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9이었다.

3) 노후대책 측정도구

노후대책 측정도구는 청, 장년층을 대상으로 Kim (2010)이 개발한 노후대책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5개 문항의 경제적 노후대책(10개 문항), 신체적 노후대책(8개 문항), 정서적 노후대책(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대책 정도가 높은 것을 말한다. 도구 신뢰도는 Kim (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92, 경제적 Cronbach's α = .86, 신체적 Cronbach's α = .85, 정서적 Cronbach's α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 .89, 경제적 Cronbach's α = .83, 신체적 Cronbach's α = .80, 정서적 노후대책은 Cronbach's α = .85이었다.

4. 자료 수집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본 책임연구자가 소속하고 있는 S병원의 연구윤리위원회(승인번호: IRB No. 2011-SCMC-113-00) 및 간호부의 승인을 얻은 후 연구자가 직접 자료수집 장소에 방문하여 간호사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 및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연구 참여동의서를 받았다. 참여동 의서에는 연구목적,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 연구 철회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직접 설명하여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확인하였고 자가보고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한 후 자료 수집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성공적 노후인식 정도, 퇴직에 대한 태도 및 노후대책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평균평점, 최소값, 최대값으로 제시하였다.
-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노후대책의 정도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무관련 특성)

대상자의 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은 여자 98.5%, 남자 1.5%, 연령은 20~29세가 66.2%, 30~39세가 24.6%, 40세 이상이 9.2% 순으로 나타났고, 결혼상태는 미혼이 69.7%, 기혼이 30.3%였다. 종교가 없는 경우는 50.3%이었으며, 교육정도는 3년제 교육과정 졸업자가 79.5%, 4년제 교육과정 졸업자 이상이 20.5% 순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 유무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는 68.2%,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31.8%이었으며, 주택형태는 자가 44.1%, 기타 30.3%, 전세 17.9%, 월세 6.7%였다. 근무특성으로 근무기간은 2년~5년 미만이 33.8%, 6개월~2년 미만이 23.1%, 5년~10년 미만이 18.5%, 10년~20년 미만이 17.4%, 20년 이상이 7.2%로 나타났으며,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가 79%, 하지 않는 경우가 21%였으며 일반병동 근무자가 61.1%, 특수파트 근무자가 25.6%, 외래 근무자가 13.3% 순이었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87.2%, 책임 간호사가 7.7%, 수간호사 이상이 5.1%이었으며, 연봉은 2000~3000만원 미만이 64.6%, 3000~4000만원 미만이 25.7%, 4000만원 이상은 9.7%로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 퇴직 연령은 55세미만이 53.3%, 55세~60세미만이 20.5%, 60세~65세 미만이 20.5%, 65세 이상은 5.6%였으며 퇴직 후 재취업 의도는 원함이 52.3%, 원하지 않음이 47.7%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적절한 노후준비 시기로 30대는 47.2%, 40대는 24.1%, 20대는 19.5% 순이었다.

2. 대상자의 성공적 노후인식 정도, 퇴직에 대한 태도, 노후대책 정도
 대상자의 성공적 노후인식은 평균 45.52±4.21(도
 구범위: 13-52), 평균평점 3.50±0.32(척도범위: 1-4)로 나타나 높은 정도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정도는 평균 31.12±5.00(도구범위: 9-45), 평균평점 3.45± 0.61(척도범위: 1-5)로 나타

Table 1. Level of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ttitude Toward Retirement, Retirement Plan

Variables(number of question)	M±SD	Min-Max	Point M±SD	Scale rang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13)	45.52 ± 4.21	37.0 - 52.0	3.50 ± 0.32	1-4
Attitude toward retirement(9)	31.12 ± 5.00	17.0 - 45.0	3.45 ± 0.61	1-5
Retirement plan(25)	70.62 ± 13.68	34.0 - 112.0	2.82 ± 0.54	1-5
Economic(10)	26.17 ± 6.20	10.0 - 47.0	2.61 ± 0.62	1-5
Physical(8)	22.06 ± 5.26	8.0 - 37.0	2.75 ± 0.65	1-5
Emotional(7)	22.37 ± 5.35	7.0 - 35.0	3.19 ± 0.76	1-5

Table 2. Level of Retirement Pla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195

Characteristic	Division	Frequency (%)	M±SD	t/F	p	Scheffe's
Sex	Male	3(1.5)	62.33±4.04	-1.508	.292	
	Female	192(98.5)	70.75±13.74			
Age(yr)	20~29a	129(66.2)	68.37±11.56	9.975	<.001	a<b<c
	30~39b	48(24.6)	72.10±15.63			
	Over 40c	18(9.2)	82.78±15.96			
Material status	Single	136(69.7)	68.29±12.08	-3.366	.001	
	Married	59(30.3)	75.98±15.64			
Education	Associate Degree	155(79.5)	69.50±12.92	-2.269	.024	
	≥BSN	40(20.5)	74.95±15.73			
Dependent family	Have	119(61.1)	75.61±15.48	3.283	.001	
	None	50(25.6)	68.29±12.13			
Foam of owing house	Own	86(44.1)	71.97±15.33	3.447	.018	-
	Rent	35(17.3)	74.49±13.05			
	monthly rent	13(6.7)	71.49±13.89			
	etc	61(31.3)	66.25±10.31			
Duration of employment (yr)	6m~under2 ^a	45(23.1)	67.82±9.82	3.121	.016	a,b,c<e
	2~under5 ^b	66(33.8)	69.26±12.44			
	5~under10 ^c	36(18.5)	69.72±15.10			
	10~under20 ^d	34(17.4)	73.82±15.31			
	Over20 ^e	14(7.2)	80.57±17.62			
Shift	Have	154(79.0)	69.60±13.26	-2.027	.044	
	None	41(21.0)	74.44±14.70			
Department of work	Ward ^a	119(61.1)	69.92±12.70	4.692	.010	a,b<c
	ICU ^b	50(25.6)	68.46±14.93			
	Out patient ^c	26(13.3)	77.96±13.68			
Position of department	Registered nurse	170(87.2)	69.72±12.65	2.996	.052	
	Charge nurse	15(7.7)	76.07±15.78			
	Over head nurse	10(5.1)	77.80±22.77			
Annual salary (ten thousand won)	2000~under3000 ^a	127(64.6)	68.48±13.42	6.108	.003	a<c
	3000~under4000 ^b	49(25.7)	72.82±12.35			
	Over4000 ^c	19(9.7)	79.05±15.17			

나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노후대책 정도는 평균 70.62±13.68(도구범위: 25-125), 평균 평점 2.82±0.54(척도범위: 1-5)로 나타나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으며, 노후대책의 하위 영역으로 정서적 노후대책은 평균평점 3.19±0.76(척도범위:1-5), 신체적 노후대책은 평균평점 2.75±0.65(척도범위:1-5), 경제적 노후대책은 평균평점 2.61±0.62(척도범위: 1-5)의 순으로 모두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Table 1).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후대책 정도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후대책 정도는 연령(F=9.975, $p<.001$), 결혼상태($t=-3.366$, $p=.001$), 교육정도($t=-2.269$, $p=.024$), 부양가족 유무($t=3.283$,

$p=.001$), 주택소유 형태($F=3.447$, $p=.018$), 근무기간($F=3.121$, $p=.016$), 교대근무($t=-2.027$, $p=.044$), 근무부서($F=4.692$, $p=.010$), 연봉($F=6.108$, $p=.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한 결과 40세 이상인 경우가 노후대책 정도가 가장 높았고, 30~39세인 경우, 20~29세 순으로 노후대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가 10년 미만인 경우보다, 외래 근무인 경우가 일반 병동이나 특수 파트 근무인 경우보다, 연봉인 4,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노후대책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기혼인 경우가 미혼인 경우보다, 4년 졸업 이상인 경우가 전문대 졸업인 경우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Table 3. Level of Economic Retirement Pla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195

Characteristics	Division	Frequency (%)	M±SD	t/F	p	Scheffe's
Sex	Male	3(1.5)	24.67±5.77	-0.423	.673	
	Female	192(98.5)	26.19±6.23			
Age(yr)	20~29 ^a	129(66.2)	24.89±5.26	12.142	<.001	a,b,c
	30~39 ^b	48(24.6)	27.58±6.68			
	Over 40 ^c	18(9.2)	31.61±7.66			
Material status	Single	136(69.7)	24.74±5.41	-5.238	<.001	
	Married	59(30.3)	29.49±6.70			
Education	Associate Degree	155(79.5)	25.51±5.90	-3.003	.003	
	≥BSN	40(20.5)	28.75±6.74			
Dependent family	Have	119(61.1)	28.77±6.88	4.157	<.001	
	None	50(25.6)	24.96±5.49			
Foam of owing house	Own	86(44.1)	27.10±6.73	4.141	.007	-
	Rent	35(17.3)	27.80±6.04			
	monthly rent etc	3(6.7)	25.85±5.29			
Duration of employment (yr)	6m~under2 ^a	45(23.1)	24.11±4.73	5.962	<.001	a,b,c,e
	2~under5 ^b	66(33.8)	25.23±5.16			
	5~under10 ^c	36(18.5)	26.14±6.81			
	10~under20 ^d	34(17.4)	28.68±6.38			
	Over20 ^e	14(7.2)	31.29±8.61			
Department of work	Ward ^a	119(61.1)	25.22±5.64	5.479	.004	a,c
	ICU ^b	50(25.6)	26.68±6.90			
	Outpatient ^c	26(13.3)	29.58±6.22			
Position of department	Registered nurse	170(87.2)	25.79±5.61	2.833	.061	
	Charge nurse	15(7.7)	29.47±7.37			
	Over head nurse	10(5.1)	27.80±11.5			
Annual salary (ten thousand won)	2,000~under 3,000 ^a	127(64.6)	24.58±5.77	15.889	<.001	a,b,c
	3,000~under 4,000 ^b	49(25.7)	28.16±5.75			
	Over 4,000 ^c	19(9.7)	31.53±5.96			

가 하는 경우보다 노후대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노후대책 정도는 연령 ($F=12.142, p<.001$), 결혼상태($t=-5.238, p<.001$), 교육정도($t=-3.003, p=.004$), 부양가족 유무($t=4.157, p<.001$), 주택소유형태($F=4.141, p=.007$), 근무기간($F=5.962, p<.001$), 근무부서($F=5.479, p=.004$), 연봉($F=15.889, p<.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 40세 이상인 경우가 40세미만에 비해, 근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가 10년 미만인 경우보다, 외래 근무자인 경우가 일반병동 근무자인 경우보다, 연봉 4,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그 이하인 경우에 비해, 기혼인 경우가 미혼인 경우보다, 4년 졸업이상인 경우가 전문대 졸업인 경우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경제적 노후대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신체적 노후대책 정도는 연령 ($F=4.846, p=.009$), 결혼상태($t=-2.339, p=.017$), 부양가족 유무($t=2.450, p=.015$), 근무부서($F=3.508, p=.03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한 결과 40세 이상인 경우가 20세~29

세인 경우보다, 외래 근무자인 경우가 특수파트 근무자인 경우보다 신체적 노후대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인 경우가 미혼인 경우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신체적 노후대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정서적 노후대책 정도는 연령 ($F=5.173, p=.016$), 근무부서 ($F=3.764, p=.02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후 분석한 결과 40세 이상인 경우가 40세미만인 경우보다, 외래 근무자인 경우가 특수파트 근무자인 경우보다 정서적 노후대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IV. 논 의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성공적 노후인식 정도와 퇴직에 대한 태도 및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노후대책 정도와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후대책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의 성공적 노후인식 정도는 3.50점으

Table 4. Level of Physical Retirement Pla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195

Characteristics	Division	Frequency (%)	M±SD	t/F	p	Scheffe's
Sex	Male	3(1.5)	19.67±4.041	-0.795	.428	
	Female	192(98.5)	22.10±5.28			
Age(yr)	20~29 ^a	129(66.2)	21.35±4.81	4.846	.009	a<c
	30~39 ^b	48(24.6)	22.88±5.89			
	over40 ^c	18(9.2)	25.06±5.55			
Material status	Single	136(69.7)	21.48±5.3	-2.339	.017	
	Married	59(30.3)	23.42±5.38			
Dependent family	Have	119(61.1)	23.40±5.52	2.450	.015	
	None	50(25.6)	21.44±5.01			
Shift	Have	154(79.0)	21.69±5.15	-1.958	.052	
	None	41(21.0)	23.49±5.51			
Department of work	Ward ^a	119(61.1)	22.03±5.10	3.508	.032	b<c
	ICU ^b	50(25.6)	20.98±5.15			
	Outpatient ^c	26(13.3)	24.31±5.74			
Position of department	Registered nurse	170(87.2)	21.75±5.18	2.577	.079	
	Charge nurse	15(7.7)	23.87±4.50			
	Over head nurse	10(5.1)	24.80±6.88			
Annual salary (ten thousand won)	2,000~under 3,000	127(64.6)	21.64±5.31	1.863	.158	
	3,000~under 4,000	49(25.7)	22.38±5.21			
	Over 4000	19(9.7)	24.05±4.82			

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 한 Han (2009)의 연구에서 3.58점, Lim (2006)의 연구에서 다른 척도를 환산하였을 때 3.71점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측정도구의 척도가 다르지만 환산하여 보면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후인식을 조사한 Ku (2007)의 연구에서 3.46점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고, 노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를 조사한 Park (2006)의 연구에서 3.12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본 연구 결과가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 대상자는 20대가 66%, 미혼이 70%를 차지하는 2차 종합병원 간호사이며 Lim (2006)의 연구 대상자는 20대가 52.8%, 미혼이 58.2%로 국.공립, 대학, 사립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반면에 Park (2006)의 연구는 전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령에 따른 성공적 노후인식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차이가 미세하며 가속되는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성공적 노후인식 정도가 대부분의 연구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간호사들의 연령별 분포도에 따라 대부분의 대상자가 20대, 30대 간호사들로 이루어져 있어 중, 장년층 간호사의 의견을 대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Ferri, James와 Prucho (2009)의 연구에서 성공적인 노화는 다차원 개념(신체 건강, 사회적 지원, 심리적 건강, 기능성, 능력/활동)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대상자 개인의 정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사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연구와 연령, 결혼, 부양가족유무에 따른 노후인식 정도를 일정한 간격으로 비교하는 후속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간호사의 퇴직에 대한 태도는 3.45점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중년기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퇴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Kim (2004)의 연구에서 평균평점 3.03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Cho (2005)의 연구에서 2.77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퇴직에 대한 태도가 간호사나 중년기 직장남성이나 노년기 직장 남성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63세 이상의 퇴직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Jonsson 과 Andersson (1999)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30%가 퇴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가족의 지지라고 답하였고 9%는 레저, 취미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퇴직 후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퇴직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Table 5. Level of Emotional Retirement Pla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195

Charateristics	Division	Frequency (%)	M±SD	t/F	p	Scheffe's
Sex	Male	3(1.5)	18.00±3.60	-1.432	.154	
	Female	192(98.5)	22.45±5.36			
Age(yr)	20~29 ^a	129(66.2)	22.13±5.06	5.173	.006	a,b(c)
	30~39 ^b	48(24.6)	21.65±5.63			
	Over40 ^c	18(9.2)	26.11±5.44			
Dependent family	Have	119(61.1)	23.44±6.1	1.740	.085	
	None	50(25.6)	23.89±4.88			
Duration of employment (yr)	6m~under2	45(23.1)	22.13±4.22	1.198	.313	
	2~under5	66(33.8)	22.74±5.54			
	5~under10	36(18.5)	21.58±5.47			
	10~under20	34(17.4)	21.79±6.02			
	Over20	14(7.2)	24.93±5.55			
Shift	Have	154(79.0)	22.13±5.57	-1.264	.208	
	None	41(21.0)	23.31±4.37			
Department of work	Ward ^a	119(61.1)	22.67±5.25	3.764	.025	b(c)
	ICU ^b	50(25.6)	20.80±5.67			
	Outpatient ^c	26(13.3)	24.08±4.59			

퇴직에 대한 태도가 부양가족유무, 근무기간, 연봉으로 나타난 것은 Friis, Ekholm, Hundrup, Obel과 Grønbaek (2007)의 연구에서 낮은 임금과 불량한 건강상태, 결혼상태, 배우자 유무, 낮은 근무환경이 간호사의 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퇴직에 대한 태도는 퇴직의 개념이 있는 간호사 집단과 퇴직의 개념이 없는 전업주부나 취업희망자 집단별 퇴직의 개념 비교와 퇴직의 영향요인을 비교하는 비교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 간호사의 노후대책 정도는 2.82점으로 나타난 결과는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에 관한 정도를 측정 한 Park (2004)의 연구에서 2.86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유사하였다.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임상간호사의 노후대책 하위영역으로 경제적 영역은 평균평점 2.61점, 신체적 영역은 평균평점 2.75점, 정서적 영역은 평균평점 3.19점으로 정서적 노후대책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청, 장년층 남녀를 대상으로 노후대책을 측정한 Kim (2010)의 연구에서 경제적 영역 2.14점, 신체적 영역 2.90점, 정서적 영역 3.12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Lee (2009)의 연구에서 경제적 영역 2.68점, 신체적 영역 2.88점, 정서적 영역 2.93점으로 나타난 결과에서도 정서적 영역의 노후대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적 영역이었고, 가장 낮게 나타난 노후대책 영역이 경제적 영역으로 나타난 결과가 일치하였다. 또한 Cronan (2009)의 연구에서도 경제와 레저가 퇴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현재도 대중의 주된 쟁점을 반영하는 요소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와 다른 연구의 비교에서 남녀 모두 직장 유무에 상관없이 경제적 노후대책이 가장 낮으므로 이에 대한 퇴직 후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준비 및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넷째,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노후대책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40대 이상인 경우가 20대, 30대보다, 기혼인 경우가 미혼보다, 4년 졸업 이상인 경우,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근무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외래근무자인 경우, 연봉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노후대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청, 장

년층을 대상으로 노후대책을 측정한 Kim (2010)의 연구에서 연령이 40대 이상, 학력이 대학원졸 이상, 기혼일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수입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대책 정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장년층(Park, 2008)과 직장 근로자(Lee, 2009)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연령이 많을수록,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노후대책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Suck (2011), 병원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Park (2008)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한 Lim (2006)의 연구와 서울시 공공의료원 종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Lee (2011)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대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의식을 조사한 Lim (2006)의 연구에서 노후에 경제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현재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와 시기가 너무 빨라서'의 순으로 나타났고, 임상경력 5년 미만인 경우는 약 50만원, 30대, 40대 이상 및 기혼인 경우, 임상 경력 10년 이상인 경우는 100만원으로 나타나 미혼이며 젊은 연령층일수록 노후를 위한 저축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 30대 미혼이면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경제적 노후대책에 대해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지출이 많아 경제적 노후대책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지출발생이 많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입사 시부터 계획적인 경제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퇴직 후 경제대책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신체적 노후대책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20대보다 40대인 경우에, 미혼인 경우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 중환자실보다 병동근무인 경우에 유의하게 신체적 노후대책이 낮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신체적 노후대책을 측정한 Kim (2010)의 연구에서 미혼일수록, 자녀가 없을수록 신체적 차원의 노후대책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독세대가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여 볼 때 간호사 또한 예외가 아니므로 혼자

사는 간호사의 신체적 건강증진 및 노후대책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이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또한 장년층(Park, 2008)과 직장근로자(Lee, 2009)를 대상으로 신체적 노후대책 정도를 측정된 연구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 부양을 기대하지 않을수록 신체적 차원의 노후대책이 높게 나타났다. Suck (2011)의 연구에서는 월 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Park (2008)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나타났고, Cho (2005)과 Lee (2009) 연구에서도 연령, 월평균수입 등이 신체적 노후대책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Lim (2006)의 연구에서 결혼 상태와 근무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미혼, 기혼 두 그룹 모두 노후건강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젊고 미혼이며 부양가족이 없고 연봉이 적은 간호사들은 신체적 노후대책 준비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여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감염율이 높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정서적 노후대책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40대 이상, 외래 근무자 일수록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 (2010)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정서적 노후대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정서적 노후대책을 위해서는 경제적 뒷받침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정서적 노후대책 수립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성공적 노후인식, 퇴직태도 및 노후대책 정도와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노후대책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C시 2차병원에 근무하는 정규직 간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은 먼저 IRB 및 간호부의 승인을 얻은 후 간호사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

기로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가보고 방식으로 작성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평균평점,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후인식 정도는 근무기간, 교대 근무여부, 근무부서, 직위, 연봉, 희망퇴직 연령에, 퇴직에 대한 태도 정도는 연령, 결혼상태, 부양가족 유무, 근무기간, 연봉, 퇴직 후 재취업 의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노후대책 정도는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부양가족 유무, 주택소유형태, 근무기간, 근무부서, 연봉에, 신체적 노후대책 정도는 연령, 결혼상태, 부양가족 유무, 근무부서에, 정서적 노후대책 정도는 연령, 근무부서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사의 성공적 노후인식 정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퇴직에 대한 태도와 노후대책 정도는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 대부분이 20, 30대 젊은 연령층으로 노후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의 노후대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에서의 퇴직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퇴직 전 노후준비를 위한 경제교육과 퇴직 후 삶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성공적 노후인식 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 Ahn, J. S. (1994). A study on a retirement trend of nursing personnel in a general hospital,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8(2), 83-100.
- Cho, J. J. (2005). *The research study of nursing officers' preparation consciousness and countermeasure for old 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Cronan, J. J. (2009). Retirement: it's not about the finances. *Journal of the American*

- College of Radiology*, 6(4), 242-245.
- Ferri, C., James, I., & Prucho, R. (2009). Successful aging: definitions and subjective assessment according to older adults. *Clinical Gerontologist*, 32(4), 379-388.
- Friis, K., Ekholm, O., Hundrup, Y. A., Obel, E. B., & Grønbaek, M. (2007). Influence of health, lifestyle, working conditions, and sociodemography on early retirement among nurses: the Danish nurse cohort study.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5(1), 23-30
- Han, M. R. (2009).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nurses about the preparation and successful life for old 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Jonsson, H., & Andersson, L. (1999). Attitudes to work and retirement: generalization or diversity? *Scandinav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1), 29-35.
- Kim, H. J. (2010). *A study on the preparation consciousness and counterplan of the young and middle-aged for old age life focusing on the young and middle-aged living in Bus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Kim, M. H. & Shin, K. R. (2006). The factor of successful aging types in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6(1), 91-104.
- Kim, Y. D. (2004). *A study on the attitude toward retirement and future plan of middle aged salary me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 ju University, Cheong ju.
- Ku, E. J.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n old-age and spiritual health among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Kwang-Ju.
- Lee J. J. (2011). *A study on the nurse's preparation for their own age-focused on the public medical center i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 Lee, H. S. (2009). *Study on the workers of earned income preparation about life after old age-focused on Ansan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Lim, M. J. (2006). *A survey research on attitudes of Korean nurses regarding provision for old 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McLaughlin, S. J., Connell, C.M., Heeringa, S. G., Li, L.W., & Roberts, J. S. (2010). Successful aging in the United States: prevalence estimates from a national sample of older adults. *Journals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5B(2), 216-226.
- Oh, S. J. (2001). *A study of nurses' preparation of retirement and need for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aejeon University, Taejeon.
- Park, H. Y. (2008). *Hospital employees' awareness of preparation and plan for old age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 Park, J. S. (2004). *A study on the social wokers' preparation for their own old 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Park, K. H. (2006). *A study on the factors of influencing on successful ag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ark, K. R. & Yi, Y. S. (2002). A study of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in later lif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2(3), 53-66.
- Statistics Korea (2012). 2010 Statistics for Old Age, Retrieved March 15, 2013,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read&aSeq=180000

Suck, M. S. (2011). *Recognition about retirement countermeasure and retirement countermeasure of health-concerning with female in Dae-Gu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Dae-Gu.

Sung, H. Y., & Yu, J. H. (2002). A study on perception of the successful aging concept,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2(2), 75-93.

Attitudes toward Aging and Retirement Planning of Clinical Nurses*

Lee, Min-Sook (Samsung Changwon Hospital, Staff Nurse)

Lee, Ji-Hyun (Kosin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Professor)

Purpose: This study examine the relationships retirement plan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nd attitude toward retirement nurse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200 nurses at two hospitals in C City. The data collection period from Nov. 1 to Dec. 31, 2011. **Results:** The degree of retirement significant according to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dependent, duration of employment, shift, department, annual salary. he degree of economic retirement pla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dependent home, duration of employment, department, annual salary. he degree of physical retirement pla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marital status, dependent, department. The degree of emotional retirement pla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department. **Conclusion:** mprove the retirement of clinical nurse, we need a systematic based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Key words : Nurses, Aging, Attitude, Retirement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osin University.